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 정책현장탐방

- 여성인권운동의 현장

배복주 | 장애여성공감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여성인권운동의 현장: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장애여성공감’이 설립된 취지와 걸어온 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장애여성을 배제하는 제도와 기준이 가진 문제에 공감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죠. 저는 1998년 창립 멤버입니다. 장애여성공감을 설립할 때 중요한 가치가 이 사회의 정상성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비정상인가, 정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몸에 대한 이야기, 속도에 대한 이야기,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장애여성들이 소위 말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회구조와 제도, 사람들의 인식 하에서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과도 연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연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 운동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중요했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더 이상 우리 몸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여성이면서도 장애를 가졌기에 복합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여성들을 위한 운동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원도 부족했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즉 운동으로서의 희소성은 있지만 운동의 동력이 되는 자원은 상당히 부족했지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여성운동 또는 장애인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행인 것은 장애여성들이 주류사회에서 배제당해 본 감각이나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데 그러한 장애여성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 많진 않더라도 깊은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 ‘장애여성공감’이라는 이름을 지으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제가 지었는데요. 우선 단체의 이름을 예쁘게 짓고 싶었고,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더 공감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애여성의 경험이 공감되고 인정되는 사회였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좀 더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또 공감이라는 단어가 너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정치적이지도 않아서 좋았습니다. 저희를 관심가지고 봐달라는, 우리도 사회의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하겠다는 쌍방향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함께 공감하자’는 뜻입니다.

## 현재 ‘장애여성공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장애여성공감은 하나의 자조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장애인 단체에 소속된 하나의 소모임이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몸이 전시되고, 우리의 의사와는 다르게 정치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단체의 간사로 있었는데, 큰 장애인 단체에서 저희 자조모임을 위한 비용도 보전해주고 프로그램도 제공해주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자, 우리의 목소리를 편하게 내자”는 취지에서 독립하였습니다. 초창기 멤버들도 각자 주중엔 일하고, 토요일에 만나서 세미나도 하고, 칼럼도 쓰고, 사무실 없이 2-3년 간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단체이름을 지었고, 회원도 받기 시작하였고, 창립식도 단출하게 했지요.

그러다가 회원 수도 좀 늘어나고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참에 후원자께서 주신 후원금으로 1999년에 사무실을 얻었고,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001년에는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기도 했고요. 저도 이 시점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여성을 위한 캠프나 교육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여성과 관련된 의제 중에서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했던 사건이 터졌습니다. 강릉에서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내에서 7년 간 지속되었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당시 저희 구성원들은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장애여성을 위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2005년에는 탈시설운동의 일환으로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시설에서 나온 장애여성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11년에 장애여성공감은 서울시 여성과에 등록된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여성공감이 펼치고 있는 사업의 1순위는 교육입니다. 장애여성학교 운영을 통해 그동안 배우지 못하고 교류하지 못했던 장애여성들을 위한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월에 개학하여 11월에 수료하는 교육과정이 매년 5-6개 정도 운영됩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여성공감에는 많은 자조모임들이 존재합니다. 극단 “춤추는 허리”, 활동보조중개사업 “불편한 옆자리”, 노래팀 “일곱빛깔무지개”, 지체장애를 가진 2-30대 장애여성의 모임 “레드립” 등 장애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자조모임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 장애여성공감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여성공감에서는 앞으로 팟캐스트와 youtube 영상과 같은 대중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더 조직화해서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여성공감의 설립 20주년을 기념해서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의 북 콘서트를 오늘 합니다. 자신이 직접 쓴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장애여성 여덟 명의 경험을 책에 담았습니다. 장애여성의 쾌락, 양육, 고통 등의 주제에 대한 원고가 실려 있습니다. 어렵고 우울한 이야기이지만,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많은 계기를 돌아보면 장애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그대로 시도해보는 것으로 사업이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떠나서 여행가고 싶다”는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캠프가 만들어졌고요.

## 장애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젠더이슈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장애유형이 있고, 1-6등급까지 나뉘어져 있지요.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이라면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경험, 주체가 아닌 대상화되었던 경험 등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많은 수의 장애여성이 고정화된 성 역할을 부여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즉 고정화된 성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여성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게 결국에는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에 편승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장애인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장애여성이 가사노동이나 육아(고정화된 여성의 역할)를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그리고 장애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관련해서도 성관계를 할 것인가, 성관계를 한다면 피임을 할 것인지, 피임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와 누가 피임할 것인지, 임신 할 것인지, 임신을 하면 임신을 지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아이를 낳는다면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 등 매우 복잡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과 지원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장애여성들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정책방향이 필요한데요. 즉 장애여성은 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교육받고 전달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피임에 대한 정보와 교육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상 낙태는 불법이지만 우생학적 사유가 있다면 합법이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론화를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한 고민을 장애여성공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여성 장애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며칠 전 대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장애 감수성을 교육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비장애인이 눈에 띄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애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편입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 대해서 충분한 감각을 갖는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장애인을 통제하고, 비장애인 사회에 억지로 맞추어 살아가도록 강요했다면 이제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감수성을 갖추고, 장애인을 포용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배려하고, 보살피고, 사랑해주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는 장애인들을 비주체화시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돌봄과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로서 인식된다면, 사랑과 돌봄의 대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비주체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둘러싼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상인이나 일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장애인은 비정상인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장애는 정체성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장애인과 대칭되게 비장애인을 설명하려면,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쓸 수 있겠지요. 이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잘못 표현하고 있는 말, 잘못 쓰고 있는 언어를 바로잡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인, 사법기관 종사자, 연구자 등이 제대로 된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일상성을 갖추는 것이지요.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서, 정부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차별받는 구조에 놓인 사람들이 권리의 주체가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한 상호작용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제도와 인식 간의 균형도 중요하고 다양성 전반에 대한 존중도 꼭 필요합니다.